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③

공관에 집착하면 소승에 떨어져

若住此觀 即墮聲聞 諸聲聞 衆等自歎言 我等若聞淨佛國土 教化衆生 心不喜樂 所以者何 一切諸法 皆悉空寂 無生無滅 無大無小 無漏無爲 如是思惟 不生喜樂 여기서부터는 경전을 인용해서 집착의 잘못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여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교화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근기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역시 한량없는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해도 그 귀결점을 끝까지 추구해본다면 근본이치는 하나일 뿐이다. 이를 두고 "방편은 많은 문이 있으나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둘이 없다"라고 하였다.

영리하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연각과 독각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했다는 학설도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연각과 독각을 논할 것 없이 공관은 불교에서는 초보적인 입문공부라는 점이다. 가령 여기에 집착으로 안주하여 대승불교로 전진하지 않으려 한다면 불법의 커다란 이익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즉 속세 유로부터 진제 공(眞)에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관문에 안주한다면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경전은 방등대승경전을 지적한 것이다. 여래의 제자인 마하가섭과 사리불 등은 소승 편공에 집착하여 위없는 무상정등정각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방등대승경전인 유마경에선 유마거사가 그들을 꾸짖고 온갖 수처스러운 일을 보여주면서 대승원교를 찬탄하고 소승을 배척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승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승을 흠모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유마경에 자세히 나온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어 저희들은 삼계 생사를 이미 벗어나 최고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여겼으며, 또 단지 공과 무상과 무작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 가운데 한 생각도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디다.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자비원력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소극적으로 자리적인 측면에만 머물렀습디다. 모든 법은 진공의 이치라는 것을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공적하여 본래 일어난 일도 없고 소멸한 것도 없으며 크고 작은 것도 없으므로 무무이고 무위이다. 범부 중생은 이 같은 이치를 미혹하기 때문에 일체법엔 인야와 시비와 대소와 생멸이 있다고 여긴다. 이는 모두 망상분별을 따라서 일어난다. 가령 육근과 육진을 벗어난다면 그곳엔 끝내 한 물건도 없게 되는데, 이를 두고 무무라고 말한다.

공무루(空無漏)에 대해 말해본다면 반야심경 가운데 안이비설신(眼不見)이 없다는 것은 내적으로 육근이 공적한 것이고, 색성향미촉법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육진이 공하다는 것이며, 사제 십이인연이 없다는 것은 이승법계가 공하기 때문이며, 육바라밀이 없다는 것은 보살법계가 공한 것이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無智亦無得)는 것은 부처님법계가 공한 것이다. 이는 하나가 공하면 일체가 공이어서 십법계가 공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공무루라고 말한다.

단지 이승은 공무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과 유가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가 있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스테이프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면제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람서사지 새로운 유식학의 집요인인 유식학의 신유식(신) 스테이프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현실 유의 집착에서 공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공으로 부터 나와 유를 함께 해야

성문과 독각은 삼계내의 견혹과 사혹을 끝까지 끊고 생사의 율타리를 벗어났다. 이는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아함경에서 말했던 "나의 삶은 이미 다했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수필됐고 하는 일은 이미 이루어 후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我生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辦 不受後有)"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로부터 해안으로서 삼계를 돌이켜보면 중생들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서 생사가 단절하지 않고 율타리가 반복된다. 이 때문에 삼계중생의 생사에 대해 깊은 염증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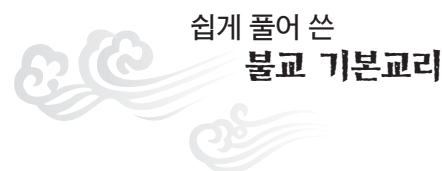
이들은 삼계를 마치 견고한 감옥처럼 여기고 생사를 원한 맺힌 집안을 보듯 하면서 진공 열반의 이치만을 굳게 지키며 다시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지극히 소극적인 열세주의로서 삼매의 구멍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래께서 법화경에서 그들을 꾸짖기를 "너희들은 마치 다시는 생명이 발아하지 못할 쉰은 종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선근종자를 영원히 끊고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처럼 되었을까"라고 하였다.

일체 성문들이 불가사의한 대승해탈법문을 듣고 울부짖자 그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하였으나 모든 보살들은 크게 기쁜 마음을 내면서 대승법을 공경하게 받아들였다.

반야부에선 공에 대한 집착을 도태시켰고 법화회상에 이르러서야 삼승방편교를 일불승으로 회귀시켰는데, 소승들은 그 때가서야 오묘한 법을 깨닫고 과거의 미혹을 슬퍼하였다.

그들은 탄식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디다. 이로 인해 세존께서 과거에 방등회상과 반야회상에서 모든 대승보살을 위해 너희들은 미래에 부처가 되어 시방세계에 신통으로 유희하면서 불국토를 정화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고 수기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환희심을 일으키지 않았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 2-사중어실지(四種如實智) 보살이 사중심사관을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로 얻은 지혜를 사중어실지(四種如實智)라고 합니다. 여실(如實)이라는 것은 실제성품과 같다는, 즉 진여에 걸맞게 아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수행 관찰하는 단계이며, 관찰이 완성되면 그 결과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로 제법의 명칭·사물·자성·차별이 실제성품인 진여에서 단지 공성일 뿐임을 증득하고, 그에 따른 모든 분별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육근과 육진의 상대적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경지가 바로 분별없는 진여로서 이를 유식실성(唯識實性)이라고 합니다.

가령 보살이 사중심사관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중어실지를 증득하지 못하며, 사중어실지를 얻지 못하면 유식실성인 견도위(見道位)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심사관과 사중어실지는 유식지관(唯識止觀)의 중요한 수행방편입니다.

따라서 수행 관찰하는 심사관은 인위(因位)에, 수행관찰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는 과위(果位)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인과위의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사중어실지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실지를 증득한 이후엔 만법의 명·사·자성·차별은 주관 분별식에서 나타난 모습(모습)으로 심식을 떠나선 따로의 모습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지혜로 제법의 실성을 실제와 같이 알아 조금도 그에 대한 착각이 없기 때문에 여실지라고 합니다.

사중어실지를 얻고 나면 제법에 대한 그동안의 허망 분별심을 떠나서 최초로 유식실성인 진여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보살이 사관(四觀)을 수행하며 사지(四智)를 얻는 것은 유식지관을 수행한 확실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상의 사중심사관에서 앞의 심사관, 즉 분별추리의 심사관으로 취할 대상(所取因) 네 가지 경계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심식을 떠나선 실재하는 자성이 따로 있지 않은 공성임을 관찰했습니다.

이 사중관에서는 인식대상엔 실재하는 모습이 없음을(所取因)을 관찰했을 뿐, 그것을 공성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분별심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이치까지는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중어실지로는 인식대상이 이미 공적하다면 그 대상을 공성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분별심도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能取空). 그 이유는 객관을 떠난 주관만이 따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식대상이 허망한 경계가 공적하다면 인식주관인 허망한 분별식도 역시 공적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실지를 증득해 가는 수행과정은 다시 네 종류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張如舟

패철 보는 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풍수지리 이기들의 나경 사용법. 연습용 19층 관라 나경 도해삽인. 이 책 구입하면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은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신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문庫 울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전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철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캐시(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화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 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청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정확하여 적중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운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호타 비결전서(상·하)”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수 있는 비서,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수 있음,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호타암 주지원공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순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어도 직접 오실수 없어서 공부할수 없는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장을 화상으로 공부할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원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 CD 판매

-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세승매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